

한국의 경제 발전

한반도의 분단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17.1} 이 글에서는 분단 이후 남한의 경제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은 1950년대 후반에는 전후 복구 사업에 치중하였으며^{17.2} 별 성과 없는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 나갔다.^{17.3}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놀랄만한 경제적 성취는 남한의 위상을 후진국에서 개발 도상국으로 올려 놓았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국민 총생산 연 평균 성장률은 8.3%를 기록하고 있다. 그간 국민 총생산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해는 1979년 오일 쇼크 다음해인 1980년(-5.2%)과 금융 위기를 맞은 1997년(-6%) 두 해뿐이었다.

이렇게 눈부신 경제 개발 뒤에는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었다.^{17.4}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그의 군사 독재 정치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경제 개발에의 공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하고 있다.^{17.5}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내 금융 기관이 국영화되어, 모든 대출업무 및 해외로부터의 차관이 전적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고,^{17.6} 60년대 이후의 주요 경제 정책은 ‘수출 장려 정책’이었다. 국내 수출업자들에게는 무제한의 관세 면제 혜택과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융자도 주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 경제는 주로 수출 성과가 좋은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게 되었다. 결국 이는 삼성, 대우, 현대, 럭키금성(지금의 LG)과 같은 거대한 재벌 기업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수출을 장려하는 한편^{17.7} 국내 농업을 국제 시장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고 농업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정책을 써 왔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편에 서서^{17.8} 노조 활동을 통제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노조 활동을 탄압해 1980년대 초반까지 남한의 노조 활동은 극히 미비했다.

CS CamScanner ile tarandı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72년부터 정부는 중화학 공

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17.9} 시작했다. 중화학 공업 육성책으로 정유, 석유 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 등 상당한 중공업 산업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방직 산업과 같은 경공업 분야가 침체해 산업간 불균형을 보이기도 한다.

1979년의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혼란한 정국을 맞았으며, 그 이듬해인 1980년은 사상 최저의 국민 총생산량 마이너스 5.2% 성장률을 보인다. 이와 같은 난국의 해결책으로 전두환 제5공화국은 예전보다 더 많은 외채를 끌어들인다. 1979년의 외채 대 국민 총생산 비율은 33%이었고, 1980년과 1981년에는 각각 45% 및 49%이었다. 다행히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한국의 경제도 회복되어, 경기는 경기침체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갈 수 있었다. 1988년의 서울의 올림픽 경기의 유치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었다. 그 후에도 1997년에 닥친 경제 위기 전까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 왔다.

1997년에 닥친 통화 위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경 유착에 따른 비정상적인 국내외 금융 관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계속해서 늘어난 외채와 단기 상환 조건의 외채의 장기 투자가 결국 외환 위기로 몰고 갔다고^{17.10} 보는 견해가 많다. 결국, 국가 경제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며,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거금 미화 302억 불의 구조 융자금을 빌려 그 위기를 모면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한국은행은 이를 갚아야 할 2004년 5월보다 훨씬 앞당겨 2001년 8월 23일에 이를 모두 갚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불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는 통화 위기 이전의 경제로 회복하는 데는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Konu ile ilgili sözcükler

- 개발 도상국
- 개방하다
- 거대하다
- 경공업
- 경기 침체
- 경쟁
- 관세 면제
- 교역국
- 국내 농산물
- 국민 총생산
- 국제 통화 기금
- 군사 쿠데타
- 군사 독재 정치
- 금융 관리
- 금융 기관
- 난국
- 비정상적
- 성장률
- 오일 쇼크
- 외환 위기
- 재벌
- 중화학 공업
- 해결책

- 후진국
- 선진국

Tartışma Soruları

- Kore'nin ekonomik gelişimi hakkındaki düşünceler
- Kore'de chaebol sistemi hakkındaki düşünceler
- Ekonomik zorluk döneminde Kore halkının tutumu hakkındaki düşünceler
- Kore'nin önde gelen şirketlerinin gelişimi